

2017년 12월 7일, 애월읍 금성리 고행일 씨 댁, 이효순 조사.
고행일(남, 1941년생, 애월읍 금성리)

- 줄거리: 나라에서 효자를 뽑았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이 뽑혔다. 이에 서울에 사는 효자가 괘씸하게 여겨 시골로 내려가서 어떤 효도를 하는지 직접 확인하였다. 가서 보니, 아버지가 소에 길마를 하고 나무를 하러 나갔다가 들어와서도 몇 마디의 말을 나누지도 않고 식사를 하는데 차린 음식도 형편이 없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서울 효자는 시골 효자에게 당신은 불효자라 하면서 부모에게 좋은 옷과 좋은 음식으로 안전하게 집안에 모시는 것이 효자라고 했다. 그런 서울 효자를 비웃으며 시골 효자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부모님이 하고자 하는대로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했다.

[제보자] 요즘 노인에게 진짜 효도란 어떻게 하는 게 효도냐? 옛날에 효자를 뽑는 대회가 있 엇던가봐예. 가짠지 진짠지 몰라도.

[조사자] 어디가 제일 효자냐?

[제보자] 예, 예. 이제는 결선에 오른 사람이, 도시에 효자 한 분하고 촌에 효자 한 분이 결선에 올랐는디.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음식에 좋은 옷 입지곡, 좋은 방에 부 모님을 제나름대로 잘 모신다는 사흘이 도시 효자라.

[조사자] 근데 촌에 사흘이 뭐불언마씨?

[제보자] 예. 촌에 사는 사흘이 뽑혔는데. 아, 괘씸허연. 그러면 한번 촌에 사는 그 효자가 어떤 식으로 효도하는지 눈으로 봐야 하겠다 하여 이제는 쫓양 완 보니까, 효자 뭐는 분은 집에 남아 있고, 아, 이거 아버지 뭐는 분은, 들으니까 쉐질메에 낭 허레 갓우다. 나무 허레 갓우다 허니. 괘씸허영 헌 사람이
“아니, 부모님을 편안하게 집에 모셔 놓고 좋은 음식광 좋은 옷을 입지곡 허영 잊어야 될 건디. 아버지를 이디 저디 가게 허는 건 뭐냐고.”

하면서, 이젠 집에 갈 때까지 가만히 잇는다. 아버지가 쉐질메에 낭 싣건 왓어 마씨. 이제 받아 쥐멍

“아버지, 오늘 고생 많았우다.”

허니

“그래.”

단 말이라는 건 그것뿐이라마씨. 쉐질메에 낭바리 내려놔 놓고 뭘가 아들이 세

숫물 떤

“세수허십서.”

“어. 경 허주.”

세수허고 이제는 저녁을 먹는다

‘하. 참. 아래도 효자를 일등을 받으니....’

이제는 저녁에 도시에서 온 효자허고 촌의 효자가 방에서 자면서 들었어마씸.

“당신은 효자는 그렇고 아주 불효자라.”

허니까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느냐?”

허니까

“나는 좋은 옷과 이제 좋은 음식을 헤가지고 대접허고, 베꼈다 나가믄 질 일러 불카부덴 어디 나가지 말양으네 집안에서만 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모셨다는 거라마씨.

촌에 효자가,

“그것이 바로 불효야. 부모님 너무 그렇게 간섭을 허면 부모님이 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 행동 그것을 구속하는 것이 효자냐?”

말이여.

[조사자] 아. 구속하는 것이.

[제보자] 응. 촌에 효자 허는 얘기가

“나 생각에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안 허곡 그대로 부모님이 허고자 허는 그런 의사대로 순종하는 것이 효행이라.”

고 한다고.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잇는 거라마씨.

- 핵심어: 효도, 효자, 불효, 부모님, 구속, 순종, 효행